

## 내러티브 저널

2026년 4월 15일

오늘은 문예창작과 교생 선생님의 연구 수업 평가에 참여하였다. 연구 수업에 앞서 교생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수업을 시연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같은 교생의 입장에서 수업을 바라보며 좋은 점과 보완할 점을 이야기하는 과정이 매우 의미 있었다. 특히 같은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교사마다 수업을 구성하는 방식과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후에는 나의 수업 시연이 진행되었다.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이 보였고 긴장도 되었지만,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고 수업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수업을 마친 뒤에는 동료 교생 선생님들과 지도교사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 수업은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오늘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 싶다. 교생실습 기간 동안 여러 번의 수업 경험을 통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하루였다.